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낀 경험 떠올리기

1) 감사의 마음을 느낀 경험을 떠올려 적어 봅시다.

대상	이유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 알아보기

1) 글의 내용과 짜임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지효에게  
지효야, 안녕? 나 신우야.  
지효야, 아까 내가 네 책상 옆에서 미역국을  
엮질렀지? 너는 네 가방이 더러워져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나에게 “괜찮아?”하면서 걱정을  
해주었어. 그리고 미역국 치우는 것을 도와주  
었어.

나는 미역국을 엮지르고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 너무 당황스  
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고 같이  
치워 주어서 감동했단다.

지효야, 아까는 당황스러워서 너에게 고맙다  
는 말을 제대로 못 했어. 정말 고마워!  
네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  
앞으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꼭 도와  
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친구 선우가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밝히고, (            )를  
한다. (            )을  
자세히 쓴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            )  
을 표현한다.

(            )을 표현  
하고 (            )를 한다.

마지막에는 글을 쓴  
사람을 밝힌다.

